

사회

말다툼·오해가 부른 살인



부인 찾던 60대 男, 길거리서 처남 살해 뒤 자살

60대 남성과 사촌 처남 간 대화 중 오간 사소한 말다툼이 끔찍한 참극을 불렀다. 가출한 부인을 함께 찾아 나선 사촌 처남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촌 처남과 광주를 찾았다. 광주에 사는 부인의 친척에게 부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사촌 처남이 친척에게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홀로 남겨둔 채 서울에 가려는 것으로 착각, 말다툼 끝에 사촌 처남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이장동 마을회관 앞길에서 함모(65·인천시 서구)씨가 불에 탄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시신 옆에서는 부인 최모(58)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함씨와 사실혼 관계인 최씨는 3개월 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다. 경찰은 함씨가 우발적으로 사촌 처남을 살해한 뒤 달아나던 중 죄책감에 차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함씨는 40분 전 남구 송하동 H자동차 맞은편 앞길에서 사촌 처남 최모(52·서울시 강남구)씨의 목과 가슴을 8차례 찔러 살해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현장을 목격 한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함씨의 뒤를 쫓던 중이었다.

하지만 에쿠스 승용차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함씨와 최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려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폭력 등 전과 21범인 함씨는 범행 당일 집을 나간 부인을 찾기 위해 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4명에 '무죄'

광주·전남 5명 재판 결과 촉각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간부들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6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 번째 1심 선고라는 점에서 향후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근태 판사는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노병성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한연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소된 운영조 광주지부장, 김해주 수석부지부장, 김정섭 정책실장, 정 석 사무처장 등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전남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홍성봉 전남지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소돼 역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뺑소니 20대 긴급체포

광주서부경찰은 19일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윤 모(2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새벽 5시2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길 건너편 문모(72)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이트 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나이트 무용수 '가짜 성기' 노출 무죄... 법원이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무용수가 팬티만 입은 채 춤을 추다가 '가짜 성기'를 노출한 사건에 대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19일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A씨에 대해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상·하의를 벗고 속옷에 부착된 모조 성기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회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려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리베이트 안주겠다"

제약사 39곳 각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기능성 소화제 '가나론(염산 이토프리드)' 제네릭 출시 경쟁과 관련해 제약사들로

부터 리베이트를 제공치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가나론 보충약가 목록에 등재돼 있는 39개 제약사를 소집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일 화순군의 한 아산에서 엽사가 농작물을 파헤치던 멧돼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모습. <왼쪽> 폭설과 한파로 굶주린 야생동물들 위해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용진산에서 고구마 등 먹이를 던져주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일 화순군의 한 아산에서 엽사가 농작물을 파헤치던 멧돼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모습. <왼쪽> 폭설과 한파로 굶주린 야생동물들 위해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용진산에서 고구마 등 먹이를 던져주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유해조수 소탕하고 흑한기엔 먹이주고

동물과 인간 공존 해법은...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교란 막아야"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제재'와 굶주린 야생동물의 연명을 위한 '배려'라는 정반대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농산물을 마구 훼손하거나 때론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대한 수렵과 함께 흑한기 여파로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사람들이 직접 먹이를 건네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멧돼지 소탕형" 인간의 반격 = 적정 서식 밀도(km당 1.1마리)를 8배나 웃도는 멧돼지 서식밀도(km당 8.6마리, 광주·전남 10만여 마리 추정).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재산피해(555억1천900만원)의 13%가 전남에서 발생(본보 2009년 11월 3일자 6면).

무등산관리사무소는 19일 겨울철 멧돼지 짝짓기 시기인 다음달 말까지 혼자 산행을 하거나 지정된 등

산로 이외의 등반을 삼가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무등산에 멧돼지 출현이 잇따르면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멧돼지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화순군 동면 아산 아래 논에서 주민 최모(76)씨가 굶주린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 어깨에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멧돼지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라도 전남지역의 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화순 등 전남 지역 4곳에 수렵장이 개설됐다.

19일 현재 전남지역 4개 군에서는 모두 1천732명의 엽사들이 수렵을 신청,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멧돼지 등 14종의 야생동물에 대

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고 있다.

◇"굶지는 않았는지" 인간의 배려 =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급곡동 무등산 자락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흑한기를 맞아 굶주리고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에게 던져줄 먹이를 들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회원, 인근 주민 등 100여명이 무등산을 찾은 것이다. 이들은 고구마(150kg)와 건초(100kg) 등 7종류 1천kg의 먹이를 군데군데 눈이 채 녹지 않은 원효 계곡 등 무등산 5개 지역에 남겼다.

무등산공원관리소 나운채(34)씨는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들 위해 해마다 흑한기가 되면 해왔던 행사"라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월출산국립공원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등 150여명은 천황사 주변 등 4곳으로 흩어져 준비해간 고구마(800kg) 등을 야생동물이 오가는 길목에 놔다. 올 겨울 광주·전남에서는 무등산과 광산구 용진산, 영암 월출산, 영광 불갑산 등에서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에 동참했다.

◇공존위한 고민 = 박필순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겨울철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건네주는 것은 인간의 선한 심성이고, 인간에게 공격하거나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대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을 허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수렵 이외에 생태계 교란에 대한 연구와 준비는 왜 선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며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에 대해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등 150여명은 천황사 주변 등 4곳으로 흩어져 준비해간 고구마(800kg) 등을 야생동물이 오가는 길목에 놔다.

올 겨울 광주·전남에서는 무등산과 광산구 용진산, 영암 월출산, 영광 불갑산 등에서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에 동참했다.

◇공존위한 고민 = 박필순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겨울철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건네주는 것은 인간의 선한 심성이고, 인간에게 공격하거나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대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을 허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수렵 이외에 생태계 교란에 대한 연구와 준비는 왜 선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며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에 대해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공사비(39억6천만원)를 47억3천만원으로 부풀려 제시한 A사의 견적서대로 이 업체를 적격업체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 등이 A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회사 뒷선 인사비와 현장관계자들의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태양광 발전소 건설 역대 리베이트

광주지검, 2명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19일 신안군 지도읍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청업

체 선정을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왔던 혐의(배임수재)로 이모(38)씨와 지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에 전기업체인 A사 관계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의 송전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면 3억원을 주겠다"는 정략에 응한 대가로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회사 임원진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적정 송

A large advertisement for 'Ginseng' (인삼)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ginseng root. The text includes '인삼의 효능으로 큰 수익이 올라...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and '인삼의 효능으로 큰 수익이 올라...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It also lists '인삼의 효능' and '인삼의 효능'.